성착취물에 성폭행까지… '제2 조주빈' 검거

경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20대 송치
피해자 11명 상대로 성착취 영상 230여개 제작·유포
'용돈'·'선물' 제공 등으로 접근해 성매매·성폭행도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처럼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악랄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제2의 조주빈'이 제주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피의자는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성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A(29·경기도)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1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개·동영상 36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범행 대상을 골랐다.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다양했다

A씨는 '상담을 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주겠다'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청소년에게 접근한 후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에게 '여자임을 인증하라'며 얼굴을 제외한 신체 특정부위를 찍어 보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을 보내오면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냈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더 높은 수위의 영상과 만남을 요구했다. 이중 만남이 이뤄진 피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을 착취했다.

또 만남에 실패하면 다른 휴대전화 번호나 SNS 계정으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너의 사진이 유포됐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널 위해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A씨가 N번방 사건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로 얻는 수익은 없고 오로지 성폭행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면서 "청소년이 경계심 없이 오픈채팅방과 같은 SNS를 이용할 경우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올리거나 전송한 사진이 악용돼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은 물론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N번방 운영자 '갓갓'인 문형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138개를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판매한 B(45·충청)씨와 올해 2월 중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청소년 알몸영상을 촬영한 C(26·경기)씨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상민기자

하루 만에 멈춘 비자림로 확장공사

27일 다시 공사 시작한 道 영산강환경청 요청에 중단
"보호종 대체 서식지 없이 공사 강행" 비판 목소리도

지난해 5월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1년만에 재개한지 하루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사 보류 요청에 따라 공사 재개 하루 만인 28일 비자림로 제2구간(제2대천교~세미교차로) 1.36㎞ 확장 공사를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반대 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 등 공사 재개 시점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7일 비자림로 확장공사 계획 구역 중 제2구간에 중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삼나무 벌채 공사에 착수했다.

도는 2구간의 경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별다른 서식지 훼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현재 비자림로에는 팔색조를 비롯한 긴꼬리딱새, 붉은해오라기 등 법정보호종들이 날아와 번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대체 서식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강행한 비자림로 공사는 대책·소통이 없는 무책임하고 나태한 행정이다. 제주도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는 2018년 6월 시작해 2021년 6월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삼나무숲 훼손과 법정보호종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의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말부터 잠정 중단됐다. 오은지·강다혜기자

도청 이어 신산공원도… 전두환 표지석 잇단 철거

1987년 설치된지 33년만

제주지역에 있던 전두환 관련 표지석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제주시는 신산공원 내 올림픽성화 조성 기념으로 설치된 전두환 기념 표지석을 27일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지석 철거는 체육시설과 파고라가 설치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내 전두환의 흔적을 지워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뤄졌다.

이 표지석은 제주시가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성화의 국내 최초 도착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조형물과 광장을 조성하면서 설치됐다. 표지석에는 '올림픽성화봉송기념 대통령 전두환. 1987. 11. 14.'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철거된 표지석은 제주시청 기록관에 보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전두환 흔적을 지워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에다 신산공원에서 열리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맞춰 철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이달 21일 도청 민원실 앞 공원에 있던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분주한 농번기 28일 제주시 애월읍 취나물 밭에서 농민들이 김매기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문예재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 안돼"

민예총 임명 철회 요구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인 이승택씨가 임명된 것에 대해 제주문화예술계가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민예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의 측근 인사 챙기기는 지역문화예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승택 이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민예총은 "이승택씨는 원 지사 선거 캠프 출신이자 민선 6기 원도정에서 정책보좌관과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을 지낸 최측근"이라며 "앞서 1차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인사를 반려하고 재단 이사장 재공모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가 결국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제주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측근 인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처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예술 창작의 열정을 가져온 문화예술인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원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의 철학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민예총은 "전문성도 자질도 없는 인사를 오로지 지사 측근이라는 이유로 임명하는 것은 반문화적인 처사"라며 "허황한 대권 욕심보다 '문화예술섬 제주'라는 스스로의 정책을 실현하는 일, 그 정책적 실천은 낙하산 이사장 임명 철회"라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여제자 성추행 전 대학교수 징역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역 모 대학교 교수로 근무할 당시 여제자를 성추행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도내 모 대학교 교수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20일 여제자와 면담 후 드라이브를 하며 제자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용접작업 중에 아차!… 농업용 트랙터서 불

지난 27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A(66)씨가 소유한 농업용 트랙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트랙터 1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82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트랙터 운전석 앞 부분에서 용접 작업 중 차량에 묻은 기름때에 용접 불티가 착화해 발생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용접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현장실무 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대 상 – 모집 조기마감될수있음 근시일 모집 마감
실업자 / 구직자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등 제외
교육기간
7월초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윈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